

Comparison of Perceptions of Creative Achievement in New Old Age and Young People¹⁾

Choi, Chang-Hee (Soongsil University, Doctoral Candidate)

Lee, Kyung-Hwa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Choi, Eun-Ju²⁾ (Research Institute for Gifted & Talented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at creativity and creative achievement the new elderly perceive an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in such perception from the perspective that new jobs should be created for the new elderly generation in their mid-50s as aging progresses rapidly. Therefore, 166 'new age' men and women (ages of 55 ~ 65); and 156 men and women; corresponding to youth (ages: 20s ~ 40s) took part in a survey, to identify the generational difference of the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mean difference test (t-test) between groups using the SPSS 24.0 program. First,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the creative achievement recognized by the new and old age ,means that they have achievement in presenting various ideas in their work, promotion, and constantly striving in their own live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creativity and creative achievement between the younger and the older generation. For the recognition of the new elderly generation who design a second life, not only for the youth, and explore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creativity and creative achievement that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generation.

Key Words : New old age, creativity, creative achievement,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generations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A04081197).

2) Corresponding Author: Choi, Eun-Ju, Research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Korea, 06978 / E-mail: ejchoi@ssu.ac.kr

신노년과 청년의 창의적 성취에 관한 인식 비교¹⁾

최창희 (송실대학교, 박사수료생)

이경화 (송실대학교, 교수)

최은주²⁾ (송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 연구교수)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50대 중반에 접어드는 신노년 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노년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신노년이 인식하는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는 무엇이며, 그러한 인식에 세대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신노년에 속하는 55세에서 65세 남녀 166명과 청년기에 해당하는 20세에서 40대 초반 남녀 156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으로 집단 간 평균 차이검증(t-test)과 빈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신노년이 인식하는 창의적 성취란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로 이루어낸 성과가 있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신노년과 청년 간에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가 중요하며 필요하다는 인식은 청년에게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를 맞았거나 퇴직 후 다음 생을 설계하는 신노년에게도 강조하고 강화되어야 할 능력이며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신노년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구성하기에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신노년, 창의성, 창의적 성취, 세대간 인식 차이

1)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4 081197).

2) 교신저자: 최은주, 연구교수,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 E-mail: ejchoi@ssu.ac.kr
논문투고일자: 2022. 5. 15 / 심사일자: 2022. 5. 15 / 게재확정일자: 2022. 6. 15

I. 서론

2016년 Klaus Schwab이 다보스 포럼 후반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한 이후 국제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산업현장에서 AI가 대체되어 일함으로 직업 지형의 급속한 변화가 일고 있고, 의학 기술의 발달은 길어진 수명으로 인한 노년기 재규정 논의가 일고 있다(Yang, 2021). 이와 함께 세계적인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및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Jung & Won, 2011). 교육계에서도 선도적 자세로 창의적 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고 창의적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창의적 인재 육성에 관한 문제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기뿐 아니라 고령의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Kim, 2011).

Lee(2002a)는 창의성에 대해 시대·문화적 상황에 맞는 새롭고(novel), 독특하며, 적절한(appropriate) 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성격이 통합된 구인으로 보았다. 과거 창의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소수의 뛰어난 영재들이 지닌 능력과 성향이라 여기는 전문적 창의성(eminant creativity)이었다면, 오늘날은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해가며, 적절하고 유용한 사적 산출물을 만들어 자아실현과 적응 능력을 높여 주는 일상적 창의성(everyday creativity)으로 보고 있다(Jung & Park, 2002). 일상적 창의성은 계발 가능한 개인의 잠재된 창의적 능력과 태도를 포함하여 사회·문화·예술 등 창작 분야에서의 업적이나 산출물, 또는 사회적 성공이나 직장에서의 창의적 리더십 등을 말하며, 이것은 창의적 성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연구에서 밝혔다(Lee & Lee, 2020).

한편 2025년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시작으로 고령자가 사회에 큰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노인세대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과 잠재적 기회 요소로서 변화를 주도해 가는 새로운 노인상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Kim, 2011). 성인을 위한 창의성에 대해 Korea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s(2014)는 자아실현적 창의성과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을 분류하여 봄으로써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이면 발현할 수 있는 창의성의 관점을 Maslow의 자아실현적 관점으로 보고 일상에서 little-c, mini-c에 해당하는 창의적 성취수준으로 말했다. 노년의 자아실현적 창의성과 관련한 외국의 연구 사례를 보면, 노년기의 적응과 삶의 만족에 있어 창의성이 긍정적 관계가 있음도 보여주었다(Fisher & Specht, 1999). 따라서 일상적 창의성 관점에서는 잠재된 개인의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향 모두 수준과 영역에 따른 차이일 뿐 성별과 나이를 넘어 교육을 통해 계발되고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Kang, 2016; Kim, 2008).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창의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창의성 교육

에 대한 인식 연구(Lee et al., 2010; Park, 2019), 아동을 대상으로 창의적 산출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를 분석한 연구(Lew, 2010)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Lee et al., 2012). 신노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관련 연구에는 창의성 발달과 관련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Lee, 2002; Lee & Ko, 2020)이 있고, 신노년들의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에 관한 인식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창의성 교육과 연구는 유아부터 청소년, 비즈니스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은퇴 이후 신노년의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를 위한 연구는 빈약하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과 평생교육 영역에서 청년기까지의 역량개발에 초점을 두고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들의 창의적 성취나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격려하고 이를 개발시키기 위한 지원과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Lee, 2019; Lee & Ko, 2020), 이미 성인기 이후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의 창의적 성취에 대해서 사회적 기대감은 낮은 형편이다(Cavanaugh & Blanchard-Fields, 2012). 그러나 신노년들 중에는 아직 현역에서 성취를 남기고 있는 신노년이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성취도 분명히 창의적 성취이다. 그렇다면 청년기의 창의성과 신노년의 창의성은 정해진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노년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창의적 성취가 유사한지 다른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를 통한 면밀한 비교로 다양한 창의적 성취를 사회적으로 격려하고, 개개인의 자아실현적 만족감을 줌으로 신노년들에게 긍정적 격려는 물론, 청년들에게는 간과했던 일상 속의 일들도 창의적 성취였음을 일깨우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평생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구문제 1. 신노년이 인식하는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신노년과 청년 간에는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창의성의 개념과 신노년의 창의성

창의성(creativity)이란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개인 누구나 계발할 수 있으며,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향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발달되고 결정된다(Sternberg & Lubart, 1999). Plucker et al.(2004)의 연구에서도 창의성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정의된 새롭고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지각 가능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태도나 과정,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Rhodes(1961)는 4P 모델에서 창의적 행동이 발현될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요소로 개인의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향, 실제적 결과로 나타나는 창의적 산출물(product)과 산출하기까지의 과정(process), 그 모든 것을 지원하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press)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창의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창성이 높아 많은 아이디어를 발산하므로 다양한 상황에 접목하는 산출물을 만들며, 새로운 범주로 접근하려는 융통성과 새롭고 독특함을 추구하려는 독창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Choi & Lee, 2021).

전통적인 창의성에 대한 인식이 특별한 사람만이 지니는 재능으로 생각하던 것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길러질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고(Runco et al., 1993), 창의적인 인간의 의미도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fully-functioning) 사람이나(Rogers, 1961) 자아실현의 인간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Maslow, 1962). 따라서 창의성은 실용·기능적인 면에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주도적 변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았다(Schank & Foster, 1995). 또한, 개인 차원에서도 자신이 가진 능력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 일상의 근본적 변화 대응과 문제해결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Csikszentmihalyi, 1996).

자아실현적 관점에서 바라본 신노년 세대는 사회에서 은퇴가 이루어지는 55세 이후의 연령층으로 인지적·신체적 기능과 활동성에 있어 노화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잠재적 발달 가능성과 적극적 사회활동 및 새로운 방식의 삶의 변화를 희망하는 제3기 인생 설계를 시도하는 사람이다(Yang, 2021). 이들은 은퇴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새로운 세대로서 삶을 되돌아보며, 자아실현을 위한 꿈을 찾고 급변하는 현 상황 앞에서 잠재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탐구능력을 길러 건강하게 자기의 성취(achievement)를 해나가는 사람들로(Cavanaugh & Blanchard-Fields, 2012), 기존 노인세대와 달리 고학력, 전문직 경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며 풍부한 지적,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확장된 노후의 삶을 질적으로 높이려는 욕구가 강한 세대이다(Jung & Won, 2011). 이러한 신노년은 노년의 고령 시기를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자기만의 성취를 깨닫고 잠재된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의 의미를 제고하여 개인경제 및 자아실현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세대라 할 수 있다(Kim & Shin,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노년이란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한 꿈을 찾기 위하여 잠재된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신노년 세대에는 자신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역량으로, 지금까지 이들

은 자신의 삶에서 창의적 성취를 이루었고, 향후에도 자신의 창의성을 발전시켜 삶에 적합하고, 적절한 창의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신노년에 대한 창의성 연구를 보면, 나이 증가로 인한 창의적 산출물은 감소할지라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과 같은 창의적 사고는 60대까지도 감소 되지 않는다는 연구(Song, 2012)가 있으며, 학자나 과학자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의 지식 축적 정도, 협업의 중요성과 같은 변인이 영역에 따른 창의성 발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시기에도 업적이거나 성과가 이루는 경우가 많음을 밝히는 연구(Dennis, 1966)도 있다. Song(2012)의 연구에서도 노년기 자기 평가 단계에서 자아 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의 감소는 나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인지 발달, 지식의 축적에서 오는 질적 변화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질적 변화에 따라서 창의성 감소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Kim(2008)은 창의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인식이 필요하고, 신노년의 잠재적인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지식을 풍부하게 쌓고, 행동에 있어서 관습적, 고착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통한 개인의 창의적 특성을 계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노년에 있어서 창의성은 자아개념, 자아통합, 자기실현을 위해 중요한 구인이라 할 수 있다.

2. 신노년의 창의적 성취와 특성

Carson et al.(2005)은 창의적 성취에 대해 개인의 생애 동안 이루어낸 창의적 산출물로서 독창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작품 같은 창의적 결과물, 솔루션을 개발하는 능력이나 행동 요소 등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생성한 창의적 산출물이라 보았고, Albert & Runco(1987)는 전 생애에 지속적 성장의 결과이며, Sternberg & Lubart(1996)도 창의적 성취는 산출물과 아이디어, 신념과 기술에 있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식과 이해의 유의미한 재조직으로 강조하였다. Woodman et al.(1993)은 동료들과 함께 아이디어, 절차와 과정을 창조하는 것,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창의적 성취라고 보았다. Baer(1997)는 창의적 산출물이란 개인의 의도에 의해 무언가가 만들어진 상태인 것으로 정의하였고, 새롭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산출하는 개인을 창의적인 사람이라 제시하였고, Choi(1998)는 한 개인이 관련 분야에서 흥미를 갖고 열심히 일해, 결과적으로 얻어진 산출물을 성취라고 보았다. Choi(2021)는 이러한 창의적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으로 개인이 창의적 활동에 참여하고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및 의도를 강조하였다.

창의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밝힌 Kim(2005)은 창의성과 성취동기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고,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자신감이 강한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Amabile, 1996; Woodman et al., 1993).

또한, Hwang(2012)은 내적 동기가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 창의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노년기 창의적 산출에 있어서도 창의적 태도나 성향, 창의적 능력이나 잠재력 등은 환경과 외부자극에 의해서 영역에 따라서 충분히 계발되고 발현될 수 있다(Chung et al., 2011).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Moses의 경우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76세에 그림을 시작하여,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영감을 준 사례가 유명하다(Davis, 1989). 또한, Olivier(2003)는 기자 생활에서 은퇴한 후 세계 최초로 실�크로드를 도보로 걷고, 도보 여행담을 기록한 책 출간 등 60대 이후 잠재적 창의적 활동을 활발하게 실천하여 노년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Kim(2008)은 노년에 창의적 성취를 이루어 최정점에 도달할 가능성과 잠재적 창의성의 발현은 나이가 들어도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노년에 있어서 창의적 성취를 이루는 동기, 창의적 태도, 성향, 능력 잠재력 등은 지속적으로 계발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감에도 강조되어야 하는 특성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신노년에 속하는 50대 이상의 세대는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를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신노년과 청년들 간에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광역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에서 70대까지의 성인 남·여 총 328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불성실한 데이터 6부를 제외하고 총 322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구성	구분	N	%
성별	남	142	44.1
	여	180	55.9
연령	20대	77	23.9
	30대	56	17.4
	40대	23	7.1
	50대	92	28.6

		60대	72	22.4	
		70대 이상	2	.6	
세대	청년	40대 이하	20대	77	23.9
			30대	56	17.4
	신노년	50대 이상	50대	92	28.6
			60대	72	22.4
학력		고등학교	37	11.5	
		전문학사	14	4.3	
		학사	174	54.0	
		석사	79	24.5	
		박사	11	3.4	
		기타	7	2.2	
직업		사무직	101	31.4	
		영업직	11	3.5	
		연구개발직	16	5.0	
		교육전문직	107	33.2	
		서비스직	32	9.9	
		상업	6	1.9	
		기타	49	15.2	
	전체		100	100.0%	

성별에서 남자는 142명(44.1%), 여자는 180명(55.9%)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 20대는 77명(23.9%), 30대는 56명(17.4%), 40대는 23명(7.1%), 50대는 92명(28.6%), 60대는 72명(22.4%), 70대 이상은 2명(0.6%)으로 나타났다. 세대를 구분하여서는 40대 이하에서 20대는 77명(23.9%), 30대 56명(17.4%)이며, 50대 이상에서 50대는 92명(28.6%), 60대는 72명(22.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노년과 청년 세대간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40대 이하를 청년기로 하였으며, 50대 이상을 신노년기로 정의하였다.

2. 인식 조사지

본 연구는 신노년의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는 무엇이며, 신노년 세대와 청년세대 간에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설계되었다. 조사도구는 Rhodes(1961)의 4P 모형을 기초로 하여 인간, 과정, 환경, 산출물로 구성하였고, 창의성 측정을 위해서 Volcano 모형을 중심으로 한 Lee(2002b)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신노년의 창의성과 창

의적 성취에 대한 인식조사 문항을 구성한 후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신노년의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측정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 α .908이었다. 인식 조사지의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인식 조사지 구성

요인	문항번호	측정 내용
개인 배경 변인	-	성별 2. 연령 3. 최종학력 4. 은퇴 전 직업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창의성, 창의적 성취 정도	1~4	창의성의 필요한지 /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 / 자신의 창의적 성취 정도 / 창의적 성취 분야
창의적 성취의 개념	5~11	직장에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실제 추진하여 성과를 낸, 타인으로부터 칭찬받은 경험, 끊임없는 노력을 창의적 성취의 의미, 문제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창의적 성취는 감소함 등
성인의 창의적 성취	12~17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용하고 독특한 제품의 산출, 영역 전문성과 실제 생활과의 연계성, 자신만의 문제해결 및 창의적 문제해결, 예능영역이나 과학 분야에서의 성취,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
창의적 능력	18~23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창의적 성격	24~28	호기심, 민감성, 모험심, 과제집착력
영역 및 환경(음악, 미술, 공학, 과학, 체육, 문학, 학업 분야)	29~40	시각예술, 생활도구, 창업, 단체스포츠, 창의적글쓰기, 학습전략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축분해 방법으로 하며, 요인간 상관을 가정하여 오블리민 사각회전(delta=0)으로 요인간 구조를 뚜렷하게 하였다. 요인계수는 .4 이상인 경우, 교차적재값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요인에 대한 문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kmo 값은 .7 이상이며 Bartlett 검정은 유의하기 때문에 문항 행렬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다. 성인의 창의적 성취 6개 문항 중 4번, 6번 문항은 요인계수가 .4 를 넘지못하였으며 창의적 능력 6개 문항 중 1번 문항, 창의적 성격 5개 문항 중 2번 문항도 요인계수가 .4 미만을 보였다. 나머지 문항의 요인계수는 .4 이상을 보이며 해당 요인에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총 누적 분산은 55.850% 로 충분한 설명량을 보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2	3
성인의 창의적 성취 1	.119	-.066	.635
성인의 창의적 성취 2	-.124	.106	.837
성인의 창의적 성취 3	.219	.048	.428
성인의 창의적 성취 4	.585	-.164	.324
성인의 창의적 성취 5	.031	.115	.684
성인의 창의적 성취 6	-.080	.336	.254
창의적 능력1	.376	.336	.149
창의적 능력2	.584	.250	.036
창의적 능력3	.863	.025	-.099
창의적 능력4	.730	.153	-.111
창의적 능력5	.850	-.089	.098
창의적 능력6	.732	.021	.009
창의적 성격1	.196	.648	.097
창의적 성격2	.372	.399	.070
창의적 성격3	-.037	.730	-.117
창의적 성격4	.145	.728	-.002
창의적 성격5	-.060	.810	3.785
회전제곱합 적재량	5.421	4.501	55.850
분산 %	39.524	9.208	7.118
누적 %	39.524	48.732	55.850

KMO=.880, Bartlett $\chi^2=2441.599$, $p<.001$

3. 연구 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22년 4월 1일~10일까지였으며, 서울과 광역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6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노년의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는 무엇이며, 신노년 세대와 청년세대 간에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식 조사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이 끝난 후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인식 조사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일반적 경향과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넷째,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탐색적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법으로는 직접 오블

리민(direct oblimin=0)을 이용하였다. KMO의 표본 적절성 수치 및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연령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량

문항의 일반적 경향과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정규성을 보여주는 왜도는 절대값 .02에서 .57의 범위이며, 첨도는 절대값 .01에서 2.74의 범위로 왜도는 절대값 3 미만, 첨도는 절대값 10 미만이면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Kline, 2015),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인의 기술통계량

요인	문항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창의적 성취의 개념	문5	1.00	5.00	3.43	.78	-.27	.10
	문6	1.00	5.00	3.87	.65	-1.00	2.74
	문7	1.00	5.00	3.63	.87	-.57	.14
	문8	1.00	5.00	2.14	.95	.81	.19
	문9	1.00	5.00	3.73	.93	-.92	.62
	문10	1.00	5.00	2.65	1.13	.13	-1.20
	문11	1.00	5.00	3.61	.97	-.76	-.05
성인의 창의적 성취	성인의 창의적 성취	1.83	5.00	3.67	.55	.04	.56
	문12	1.00	5.00	3.49	.77	.18	-.16
	문13	1.00	5.00	3.50	.83	-.22	.13
	문14	2.00	5.00	3.90	.81	-.36	-.36
	문15	1.00	5.00	4.00	.74	-.50	.44
	문16	1.00	5.00	3.43	.95	-.29	-.38
	문17	1.00	5.00	3.69	.91	-.40	-.25
창의적 능력	창의적 능력	2.00	5.00	3.72	.65	.02	-.38
	문18	1.00	5.00	3.06	.99	.13	-.65
	문19	1.00	5.00	3.58	.93	-.34	-.27
	문20	2.00	5.00	3.89	.79	-.33	-.32
	문21	2.00	5.00	4.07	.70	-.15	-.79
	문22	2.00	5.00	3.81	.82	-.29	-.44
	문23	1.00	5.00	3.90	.78	-.49	.46

	창의적 성격	2.00	5.00	3.71	.65	.06	-.35
창의적 성격	문24	1.00	5.00	3.72	.86	-.26	-.42
	문25	1.00	5.00	3.69	.84	-.31	.06
	문26	1.00	5.00	3.72	.90	-.51	-.09
	문27	2.00	5.00	3.85	.79	-.36	-.21
	문28	1.00	5.00	3.59	.93	-.35	-.55
영역 및 환경(음악, 미술, 공학, 과학, 체육, 문학, 학업분야) 요소	문29	1.00	5.00	3.81	.78	-.44	.38
	문30	1.00	5.00	3.58	.94	-.47	-.07
	문31	1.00	5.00	4.00	.72	-.51	.69
	문32	1.00	5.00	4.01	.71	-.54	.82
	문33	2.00	5.00	4.10	.66	-.30	.01
	문34	1.00	5.00	3.87	.85	-.57	.02
	문35	2.00	5.00	3.87	.78	-.50	.09
	문36	1.00	5.00	3.84	.85	-.56	.01
	문37	1.00	5.00	3.68	.94	-.45	-.46
	문38	2.00	5.00	4.03	.71	-.37	-.02
	문39	1.00	5.00	3.05	1.04	.09	-.85
	문40	2.00	5.00	3.73	.87	-.32	-.51

2. 신노년의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 인식

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의 신노년 세대는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아래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조사에 참여한 신노년 세대 322명(100%) 모두가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생각도 많았다.

그런데 신노년 세대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창의적 성취를 했다고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31.1%)들보다도 창의적 성취를 하며 지냈다고 생각하는 사람(68.9%)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창의적 성취를 이룬 분야를 학문적인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예술 분야의 성취였으며, 그리고 사업에서의 성취를 꼽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신노년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는 중요하고 필요한 역량이며, 지금까지 창의적 성취를 이루어내었으므로 향후 자신도 창의성을 발전시켜서 자신에게 적합한 창의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의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인식조사 문항		n	%
1.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100	100
	아니다	0	0
2.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되어서	126	39.1
	새로운 일을 해나갈 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164	50.9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량이라고 강조되므로	12	3.7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만드는 발명의 주요 역량이므로	20	6.2
3. 지금까지 창의적 성취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전혀아니다	5	1.6
	아니다	95	29.5
	그렇다	191	59.3
	매우 그렇다	31	9.6
	학문(공부)	136	42.2
4. 창의적 성취를 했다면 어떤 분야인가	사업(재산)	55	17.1
	권력(리더)	35	10.9
	예체능-문화(예술)	96	29.8

3. 세대별 창의적 성취, 창의적 능력, 창의적 성격의 차이

신노년기와 다른 세대를 비교하기 위해서 50대 이상을 신노년 세대로 하고, 40대 이하를 청년 세대로 구분하여 두 집단을 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의적 성취의 개념 중 5번(개인적 성취로 나는 직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업무를 추진해서 실제로 이루어 낸 성과가 많다.) ($t=-3.749, p<.001$), 7번(내 인생을 통해 끊임 없이 노력해 온 것을 나의 창의적 성취라고 본다.) ($t=-2.435, p<.05$)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개 문항에서 50대 이상이 40대 이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창의적 성취 개념의 차이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창의적 성취 개념의 차이

창의적 성취 개념에 관한 문항	연령대	n	M	SD	t
5. 개인적 성취로 나는 직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업무를 추진해서 실제로 이루어 낸 성과가 많다.	40대 이하	156	3.27	.773	-3.749***
	50대 이상	166	3.59	.763	

6. 나는 내 업무 성과로 인해 동료나 사람 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40대 이하	156	3.81	.708	-1.395
	50대 이상	166	3.92	.597	
7. 내 인생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 을 나의 창의적 성취라고 본다.	40대 이하	156	3.51	.954	-2.435*
	50대 이상	166	3.74	.770	
8. 창의적 성취는 나와 다른 소수의 뛰어난 영재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므로 일반인은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40대 이하	156	2.21	1.010	1.368
	50대 이상	166	2.07	.895	
9. 나는 창의적 성취란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본다.	40대 이하	156	3.67	.965	-1.125
	50대 이상	166	3.79	.886	
10. 내 생각에 창의적 성취는 나이가 들면 감소한다고 본다.	40대 이하	156	2.53	1.166	-1.909
	50대 이상	166	2.77	1.084	
11. 개인적으로 창의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선행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40대 이하	156	3.55	1.018	-1.088
	50대 이상	166	3.67	.917	

* $p < .05$, ** $p < .01$, *** $p < .001$

성인의 창의적 성취에서는 어떠한 문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창의적 능력에서는 18번(창의적 능력이란 의견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19번(창의적 능력이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다.)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개 문항에서는 50대 이상이 40대 이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창의적 성격에서는 26번(창의적 성격이란 새로운 상황에 접하게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미 알고 있거나 기존의 지식이나 방식을 접목하여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t = -2.101$, $p < .05$), 27번(창의적 성격이란 해결이 쉽지 않거나 모험을 요구하는 일이나 상황일지라도 그 일을 시도하고 극복하고자 한다.) ($t = -3.472$, $p < .01$), 28번(창의적 성격이란 어떤 주제나 문제에 열중하고 과제가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몰두하여 이루고자 한다.) ($t = -4.756$, $p < .001$)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창의적 성격 전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3.338$, $p < .01$). 창의적 성격에서도 50대 이상이 40대 이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인의 창의적 성취, 창의적 능력, 창의적 성격의 차이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성인의 창의적 성취, 창의적 능력, 창의적 성격의 차이

요인	요인에 관한 문항	연령대	n	M	SD	t
성인의 창의적 성취	성인의 창의적 성취	40대 이하	156	3.65	.54	-.608
		50대 이상	166	3.69	.56	

12. 창의적 성취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창의적 과정을 체험하여 유용하고 독특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40대 이하	156	3.49	.80	-.004
	50대 이상	166	3.49	.75	
13. 창의적 성취란 음악, 저술, 과학 등과 같은 영역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실제 생활과 연계되고, 주변의 인정을 받는 크고 작은 업적을 이루는 것이다.	40대 이하	156	3.42	.85	-1.626
	50대 이상	166	3.57	.80	
14. 창의적 성취란 지적 능력과 지식을 기반으로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40대 이하	156	3.92	.80	.364
	50대 이상	166	3.89	.81	
15. 창의적 성취란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표출이나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40대 이하	156	4.02	.70	.523
	50대 이상	166	3.98	.79	
16. 창의적 성취란 음악, 문학, 미술 등의 문화예술이나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40대 이하	156	3.44	.98	.190
	50대 이상	166	3.42	.93	
17. 창의적 성취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이루어낸 결과이다.	40대 이하	156	3.60	.97	-1.668
	50대 이상	166	3.77	.84	
창의적 능력	40대 이하	156	3.66	.66	-1.537
	50대 이상	166	3.77	.65	
18. 창의적 능력이란 의견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40대 이하	156	2.86	1.06	-3.636***
	50대 이상	166	3.25	.88	
19. 창의적 능력이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다.	40대 이하	156	3.46	1.02	-2.355*
	50대 이상	166	3.70	.83	
20. 창의적 능력이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른 관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40대 이하	156	3.89	.81	.130
	50대 이상	166	3.88	.78	
21. 창의적 능력이란 문제상황에서 남다른 관점과 각도로 문제를 해결한다.	40대 이하	156	4.08	.69	.213
	50대 이상	166	4.06	.72	
22. 창의적 능력이란 남과 다른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40대 이하	156	3.80	.88	-.262
	50대 이상	166	3.83	.77	
23. 창의적 능력이란 과제 제안, 문제해결 상황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을 고안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40대 이하	156	3.88	.78	-.430
	50대 이상	166	3.92	.78	

	창의적 성격	40대 이하	156	3.59	.63	-3.338**
		50대 이상	166	3.83	.65	
창의적 성격	24. 창의적 성격이란 모든 사물과 환경에 관해 알고자 하여 살펴보고, 질문한다.	40대 이하	156	3.68	.94	-0.890
		50대 이상	166	3.77	.79	
	25. 창의적 성격이란 새롭게 바꾸거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나 물건이 있는지에 대해 찾고자 한다.	40대 이하	156	3.63	.88	-1.208
		50대 이상	166	3.74	.79	
	26. 창의적 성격이란 새로운 상황에 접하게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미 알고 있거나 기존의 지식이나 방식을 접목하여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40대 이하	156	3.62	.91	-2.101*
		50대 이상	166	3.83	.88	
	27. 창의적 성격이란 해결이 쉽지 않거나 모험을 요구하는 일이나 상황일지라도 그 일을 시도하고 극복하고자 한다.	40대 이하	156	3.69	.82	-3.472**
		50대 이상	166	3.99	.73	
	28. 창의적 성격이란 어떤 주제나 문제에 열중하고 과제가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몰두하여 이루고자 한다.	40대 이하	156	3.35	1.00	-4.756***
		50대 이상	166	3.83	.80	

* $p < .05$, ** $p < .01$, *** $p < .001$

영역 및 환경(음악, 미술, 공학, 과학, 체육, 문학, 학업 분야) 요소에서는 30번(작품 전시회를 통해 전문가로부터 인정받은 경험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t = -2.581$, $p < .01$), 39번(수학 혹은 영어 등 학습과 관련된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경험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t = -2.401$, $p < .05$)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개 문항에는 50대 이상이 40대 이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영역 및 환경 요소 차이의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영역 및 환경 요소 차이

영역 및 환경에 관한 문항	연령대	n	M	SD	t
29. 일상 생활에서 독창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든 것은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40대 이하	156	3.78	.89	-0.565
	50대 이상	166	3.83	.77	
30. 작품 전시회를 통해 전문가로부터 인정받은 경험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40대 이하	156	3.44	.99	-2.581**
	50대 이상	166	3.71	.88	

31. 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내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인정받은 경험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40대 이하	156	4.02	.69	.391
	50대 이상	166	3.99	.75	
32. 무언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기기를 분해해서 새롭게 조합하는 것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40대 이하	156	4.00	.71	-.304
	50대 이상	166	4.02	.71	
33.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창안해서 시작했던 경험이 있는 것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40대 이하	156	4.08	.67	-.509
	50대 이상	166	4.11	.66	
34. 벤처기업 혹은 작은 규모일지라도 내 사업을 해본 경험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40대 이하	156	3.81	.91	-1.266
	50대 이상	166	3.93	.79	
35. 00운동을 할 때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협업을 잘 이끌어 내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40대 이하	156	3.85	.76	-.593
	50대 이상	166	3.90	.79	
36. 신춘문예에 참가하거나 글쓰는 일과 관련해 입상하거나 인정받은 경험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40대 이하	156	3.81	.90	-.566
	50대 이상	166	3.86	.80	
37. 시집을 내어 지인들에게 선물한 경험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40대 이하	156	3.61	1.01	-1.317
	50대 이상	166	3.75	.86	
38. 나만의 노하우 혹은 전략을 개발하여 단기간에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 것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40대 이하	156	4.06	.68	.578
	50대 이상	166	4.01	.73	
39. 수학 혹은 영어 등 학습과 관련된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경험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40대 이하	156	2.90	1.09	-2.401*
	50대 이상	166	3.18	.98	
40. 학습에 성공할 수 있는 나 스스로의 방법이 있어서 성적을 올린 경험도 창의적 성취의 예이다.	40대 이하	156	3.81	.87	1.504
	50대 이상	166	3.66	.86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노년의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는 무엇이며, 신노년 세대와 다른 세대, 즉 청년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신노년의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에 대해서 개념을 밝혔으며, 신노년 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신노년의 창의적 성취의 개념을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로 이루어낸 성과가 있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Carson et al.(2005)의 연구에서 창의적 성취를 개인이 생애 동안 이루어낸 유용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나 작품 등을 창의적 산출물이라 정의한 개념은 본 연구의 관점과 유사하다. 또한, 전 생애를 걸쳐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를 창의성으로 본 Albert & Runco(1987)의 연구와 관점이 유사한 것으로, 신노년 시기에도 창의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의 의미를 포함한 창의적 성취는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를 인식하여 자신의 노년에 대해 새롭고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관점은 창의성과 성취동기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kim(2005)의 연구에서 내적인 동기가 중요함을 강조한 결과와 유사하다.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Lee et al.(2010)는 창의성 교육이 학습자에게 있어서 중요함을 밝힌 연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창의적 성취라고 밝혀 창의성, 창의적 성취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관점과 유사하다. Choi(2021)는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격을 바탕으로 창의적 산출물인 창의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는 인간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특성으로 보았는데, 이는 노년기에도 창의적 산출물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관점과 유사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청년세대와 신노년세대에 있어서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는 강조되어야 하는 개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신노년 세대와 청년세대 간에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노년기를 50대 이상으로, 40대 이하를 청년기로 정의하였고, 창의적 성취의 개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향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창의적 인물에 대한 지역 및 세대별 인식차이를 밝힌 Kim(2019)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Kim(2019)의 연구결과에서 중학생들은 창의적 사고, 성향, 산물을 창출하는 사람을 창의적 인물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인물로 기업인을 들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사회적 명예와 도덕성 요인을 갖춘 사람으로 정치인을 창의적 인물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에 접하거나 문제

가 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방식을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 어떤 일에 대해 모험하려고 노력하며, 과제가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같은 창의적 성향과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창의적 능력을 창의성이라 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노년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는 중요하고 필요한 역량이며, 지금까지 창의적 성취를 이루어내었으므로 향후 자신도 창의성을 발전시켜서 자신에게 적합한 창의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영역 및 다양한 환경분야에서 50대 이상이 40대 이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Chung et al.(2011)의 연구에서처럼 창의적 태도나 성향, 창의적 능력 등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충분히 계발되고 발현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다양한 영역과 환경에서 창의성, 창의적 성향이나 능력은 꾸준히 계발되고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Kim(2008)의 연구에서 노년기는 끊임없이 잠재적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고, 창의적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창의성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을 통해 노년기는 잠재적인 창의성 발현 및 창의적 성취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가 청년세대에서만 강조되는 구인이 아닌 제 2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신노년 세대에게 있어서도 강조되는 개념으로,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신노년에게 창의성과 창의적 성취에 대한 인식과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lbert, R. S., & Runco, M. A. (1987). The possible different personality dispositions of scientists and nonscientists. In D. N. Jackson & J. P. Rushton (Eds.), *Scientific excellence: Origins and assessment* (pp. 67-97). Sage Publications.
- Amabile, T. M. (1996). *Creativity in context: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Boulder.
- Baer, J. (1997).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anticipated evaluation on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0*(1), 25-31. https://doi.org/10.1207/s15326934crj1001_3.
- Carson, S. H., Peterson, J. B., & Higgins, D. M. (2005).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creative achievement questionnaire.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7*(1), 37-50. https://doi.org/10.1207/s15326934crj1701_4
- Cavanaugh, J. C., & Blanchard-Fields, F. (2012). *Adult development and aging* (6th ed.) (K. Y. Song, H. R. Sung, D. G. Yang, J. Y. Lee, Y. K. Jang, Y. S. Jung, & Y. Y. Jo, Trans.). Cengage Learning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국문: Cavanaugh, J. C., & Blanchard-Fields, F. (2012). **성인발달과 노화** (6판) (송길연, 성현란, 양돈규, 이지연, 장유경, 정영숙, 조은영 공역). 센케이저러닝코리아. (원서출판 2011).
- Choi, E. J., & Lee, K. H. (2021).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creativity by mediating creative school environment.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1), 121-142. ㉮ 국문: 최은주, 이경화(2021).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이 창의적 학교환경을 매개하여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1), 121-142. <http://dx.doi.org/10.34226/gcl.2021.11.1.121>
- Choi, E. J. (2021). *The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creative achievement intention, metacognitive learning strategy and learning leader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국문: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창의적 성취의도, 초인지 학습전략과 학습리더역량 간의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Choi, I. S. (1998). Factors related to creative achievement: Based on systems model of creativity.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5*(2), 133-166. ㉮ 국문: 최인수(1998). 창의적 성취와 관련된 제 요인들: 창의성 연구의 최근 모델인 체계모델 (Systems Model)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 *5*(2), 133-166.
- Chung, O. B., Lim, J. H., Chung, S. H., Kim, K. E., & Park, Y. J. (2011). An investigation of the creativity as perceived by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 Ecology*, 20(1), 39-55. 국문: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2011). 대학생들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39-55.
- Csiks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Harper Collins.
- Davis, G. A. (1989). Testing for creative potential.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4(0), 257-274.
- Dennis, W. (1966). Creative productivity between the ages of 20 and 80 years. *Journal of Gerontology*, 21(1), 1-8. <https://doi.org/10.1093/geronj/21.1.1>
- Fisher, B. J., & Specht, D. K. (1999). Successful aging and crea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3(4), 457-472. [https://doi.org/10.1016/S0890-4065\(99\)00021-3](https://doi.org/10.1016/S0890-4065(99)00021-3)
- Hwang, S. T.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creative behaviors of company L memb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국문: 황상탁(2012). **L기업 구성원의 직무특성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서 내적 동기의 매개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Jung, E. Y., & Park, Y. H.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veryday creativity scale.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0(17), 155-183. 국문: 정은이, 박용한(2002). 일상적 창의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문제연구**, 0(17), 155-183.
- Jung, M. M., & Won, Y. S. (2011). A study of new age-old generation. *Journal of the Global Senior Health Promotion Institute*, 1(2), 49-65. 국문: 정문미, 원영신(2011). 신 노년 세대에 대한 고찰. **글로벌시니어건강증진개발원 논문집**, 1(2), 49-65.
- Kang, I. (2016).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and preparations for the later life among the baby boom cohort.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6(9), 460-472.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9.460> 국문: 강인(2016).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9), 460-472.
- Kim, C. J.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achievement motivation and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3(3), 75-101. 국문: 김청자(2005). 중등학생의 창의성과 성취동기 및 내재적·외재적 동기와의 관계연구. **열린교육연구**, 13(3), 75-101.
- Kim, J. H. (2008). Creativity and development: Does creativity decrease with increasing ag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1(1), 133-145. 국문: 김정희(2008). 창의성과 발달: 나이가 들면 창의성이 감소하는가?. **영재와 영재교육**, 7(1), 133-146.
- Kim, K. H. (2011). How to deal with Seoul, a super-aged society(2). *Policy Report*, 0(84),

- 1-19. 국문: 김경혜(2011). 초고령 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 **정책리포트**, (0)84, 1-19.
- Kim, M. H., & Shin, K. R. (2005).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2), 35-52. 국문: 김미혜, 신경림(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Kim, S. H. (2019). A comparative study about different perceptions on creative individuals in South Korea. *Journal of Creative Information Culture*, 5(3), 192-201. 국문: 김성환(2019). 창의적 인물에 대한 지역 및 세대별 인식차이 비교 연구. **창의정보문화연구**, 5(3), 192-201. <https://doi.org/10.32823/jcic.5.3.201912.192>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Korea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s (2014). *Creative thinking*. Hakjisa. 국문: 한국행동과학연구소(2014). **영동한 생각**. 학지사.
- Lee, E. I., & Ko, J. H. (2020). Effect of cultural and artistic experiences on elderly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individual creative trai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20(9), 461-474. <https://doi.org/10.5392/JKCA.2020.20.09.461> 국문: 이은일, 고정훈(2020). 문화예술적 경험이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 창의적 특성을 매개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9), 461- 474.
- Lee, H. Y. (2002). Creativity in old ag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1(5), 788-795. 국문: 이호영(2002). 노년기의 창의성. **신경정신의학**, 41(5), 788-795.
- Lee, K. H. (2002a). A study on creative thinking ability and creative personality of the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1(2), 47-68. 국문: 이경화(2002a). 대학생의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격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1(2), 47-68.
- Lee, K. H. (2002b). A study on creative thinking ability and creative personality of 4, 5year ol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3), 147-160. 국문: 이경화(2002b). 4, 5세 유아의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격. **교육심리연구**, 16(3), 147-160.
- Lee, K. H., & Lee, K. H.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reative achievement intention test.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2), 47-66. <http://dx.doi.org/10.34226/gcl.2020.10.2.47> 국문: 이가형, 이경화(2020). 창의적 성취의도 검사 개발 및 타당화.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2), 47-66.
- Lee, k. H., Kim, E. K., & Lew, K. H. (2012). Creative thinking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 ☞ 이경화, 김은경, 유경훈(2012). 대학생의 제 변인에 따른 창의적 능력 비교. **창의력 교육연구**, 12(1), 29-47.
- Lee, K. H., Lew, K. H., & Kim, E. K. (2010).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creativity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2), 327-346. ☞ 국문: 이경화, 유경훈, 김은경(2010). 대학생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심리연구**, 24(2), 327-346.
- Lee, Y. W. (2019). A study on developing process of core competence in university for liberal educatio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1), 181-198. ☞ 국문: 이영환(2019). 교양교육을 위한 대학의 핵심역량 개발 과정 연구. **교양교육연구**, 13(1), 181-198.
- Lew, K. H. (2010).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variables on children's creative produc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3), 71-95. ☞ 국문: 유경훈(2010). 창의적 산출물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정의·환경적 변인들 간의 구조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3), 71-95.
- Maslow, A. H. (1962). Creativity in self-actualizing people. In A. Maslow (Ed.),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p. 127-137). <https://doi.org/10.1037/10793-010>
- Olivier, B. (2003). *Longue marche* (S. H. Im & J. A. Go, Trans.). Hyohung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국문: Olivier, B. (2003). **나는 걷는다** (임수연, 고정아 공역). 효형출판. (원서출판 2000년).
- Park, S. H. (2019).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reativity and creativity education. *Research Methods Review*, 4(3), 33-62. <http://dx.doi.org/10.21487/jrm.2019.11.4.3.33> ☞ 국문: 박신향(2019). 대학생의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연구방법논총**, 4(3), 33-62.
- Plucker, J. A., Beghetto, R. A., & Dow, G. (2004). "Why isn't creativity more important to educational psychologists? potential, pitfalls, and future directions in creativity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39(2), 83-96. https://doi.org/10.1207/s15326985ep3902_1
- Rhodes, M. (1961). An analysis of creativity. *The Phi Delta Kappan*, 43(7), 305-310.
- Rogers, C. R. (1961). The process equation of psychotherap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5(1), 27-45. <https://doi.org/10.1176/appi.psychotherapy>
- Runco, M. A., Johnson, D. J., & Bear, P. K. (1993). Parents' and teachers' implicit theories of children's creativity. *Child Study Journal*, 23(2), 91-113.
- Schank, R. C., & Foster, D. A. (1995). The engineering of creativity: A review of Boden's the creative mind. *Artificial Intelligence*, 79(1), 129-143.
- Song, Y. S. (2012). *Effect of experience of taking a creativity class on creativity and cognitive learning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국문: 송윤숙(2012). **창의성 수업이 대학생의 창의성과 인지적**

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6). Investing in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1*(7), 677-688.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9). The concept of creativity: Prospects and paradigms. In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 (pp. 3-15). Cambridge.

Woodman, R. W., Sawyer, J. E., & Griffin, R. W. (1993). Toward a theory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2), 293-321. <https://doi.org/10.5465/amr.1993.3997517>

Yang, Y. H. (2021).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SALLE) model for successful aging of the new old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국문: 양윤희(2021). **신노년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평생교육(SALLE) 모델 개발.**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